계육산업뉴스

Broiler industry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 (Korea Broiler Council)

발행인 : 김홍국 편집 : 이재하

(우 137-044)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 (02)536-9855~6 FAX (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 (02)2263-3598

제5권 제1호 통권43호

1

1999

깔짚-건조하고 위생적으로?

왜 깔짚은 건조해야 하나?

만일 한 마리의 브로일러가 킥킥거린다면 이 자체로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브로일러에게 호흡장애가 있을 때에는 질병에 걸린 징후로서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습기가 많고 더러운 깔짚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에는 비단 호흡기 질병만은 아니다. 젖은 깔짚은 콕시듐, 박테리아 등의 병균 이외에도 곰팡이 및 내부 기생충난의 서식처가 된다. 젖은 깔짚으로 인해 호흡기 질병이 일어나는 이유는 암모니아 등 유해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자극과 높은 습도로 질병의 발생 및 전염의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암모니아 가스는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고 성장이 둔화되는 병적상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바닥에 습기가 많아 깔짚이 더러워지면 브로일러의 발에 끈적끈적한 오물이 묻고 깃털이 지저분해져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최근에는 짧은 사육기간 때문에 출하 후에도 치우지 않고 발효제등으로 간단히 처리한 후 다시 사용하는 농장이 늘고 있으나 닭 입장에서나,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건조하고 깨끗하며 위생적인 상태가 유지 되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습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계사 내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습기는 있게 마련이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치게 많아서 브로일러에게 피해를 줄 때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습기의 원인이 되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습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1. 음수량은 주요 요인이 된다. 브로일러는 사료섭취량의 대략 배에 해당하는 물을 먹는다. 그리고 기온이 오르면 음수량은 급격히 증가된다.
2. 계사 주위의 습도에 따라 좌우된다. 계사 내외부의 습도는 바닥의 습기가 증발하는 정도에 영향을 준다. 습도가 높으면 증발이 둔화된다.
3. 대기중의 온도가 올라가면 계사 내부의 습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
4. 환기의 역할도 크다. 환기는 온도와 습도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신선한 공기가 유통 되도록 되어야 한다. 개방된 계사는 환기조절이 않되듯이 외부의 영향을 막는 데도 문제점이 있다
5. 깔짚의 종류와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왕겨나 볏짚 썬은 것은 흡습력이 보통이나, 톱밥이나 대패밥은 강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깔짚의 종류보다는 깔짚의 두께가 문제가 된다. 깔짚의 두께는 적어도 8 ~ 10cm 정도는 되어야 계사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주고 닭의 똥과 오줌으로 인한 습기의 상승을 완화시켜 준다.
6. 사육밀도와 닭의 크기도 문제가 된다. 한마디로 밀사하면 과도한 습기의 발생으로 습기의 자연적 제거능력을 상실하며 좋은 깔짚상태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7. 급수기의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새는 것을 그대로 쓴다든지 또는 넘쳐 흘러 바닥에 수분을 증가 시키는 것도 좋지 않다.
8. 계사 주위의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 기초가 충분히 내외부를 차단하지 못한 계사는 비가 올 때 습기가 계사 안으로 스며든다.
9. 질병과 내부 기생충도 습도와 관계가 있다. 과습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질병이 또한 과습의 원인이 될 때도 있다. 특히 설사를 동반하는 질병은 수분의 흡수력이 약화됨으로서 더 많은 수분을 배설하게 된다. 습기는 브로일러 사육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며 수익을 저해하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습기의 제거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시해야 할 관리 요건인 것이다.